

疫學調查의 意義와 調查方法 및 記錄方法—I—

—1971年「口腔疾患 및 그상태에對한 疫學調查」에 際하여—

梨花女子大學 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

李 正 稔

— 차 례 —

1. 疫學調查의 意義
2. 調查計劃과 準備
3. 調查對象 選定
4. 調査表
 - 4-1 調査表
 - 4-2 調査內容 (以上 2月號)
 - 4-3 調査方法과 記錄方法
5. 實際調查
6. 分析 및 評價
7. 結語

參考文獻

1. 疫學調查의 意義

最近口腔保健界의 動向과 疫學調查의 意義

齒牙齲蝕症(dental caries)은 人類에 있어서 人種, 性別, 年齡에 關係없이 가장 普遍化된 疾病이며 여기에 齒周疾患(periodontal disease)과 治療를 要하는 顎顏面의 異常(dentofacial anomalies)等을 考慮한다면 口腔疾患 만큼 人類와 密接한 關聯을 具고 있는 것은 없다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自古로 齒牙로 因해 받은 苦痛과 缺損齒로 因한 窝失된 機能의 回復에 對한 갇가지 痕跡은 到處에서 發見된 바이거나와 醫學의 눈부신 發展이 거듭된 오늘날에도 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齒牙와 그 周圍組織의 疾患 및 그에 따른 機能喪失로 커다란 試練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어느 特定疾患 特히 傳染病의 “分布”를 觀察하는 學問이 疫學(Epidemiology)이고 그 所見을 分拆함으로서 發病原因을 紛明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疾病의 發生機轉 및 經路에 直接 間接으로 影響을 미치는 要因을除

去하는데 크게 寄與하며 結果的으로 그 疾病에 抵抗하는 要因도 探究하게 本身으로서 人類의 福祉生活에 크게 功獻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傳染病의 流行 分布 및豫防法을 取扱하던 疫學이 醫學의 發達로 傳染病이 減少됨에 따라 疫學의 方法論은 各種 癌, 心臟疾患, 高血壓, 糖尿病, 그 밖에 交通事故, 비타민 缺乏症, 齒科系疾患等 所謂 非 傳染性疾患에도 適用하게 되었고 이것은 個個人을 相對로 하는 것이 아니라 人口集團을 對象으로 各種 疾病의 原因 性格 特徵과豫防方法을 研究하게 本身에 따라 醫學의窮極的目的을 達成하는데 臨하지 못할 分野가 된 것이다.

醫學의 最近動向이 治療為主로 부터豫防為先으로 그 重點을 옮겨 갑에 따라 對象도 個個人으로 부터 人口集團으로 바뀌었으며 體系있고 科學的인 思考方式에 依하여 그 社會에서 問題가 되는 疾病—傳染病이던 아니던 間에——의 自然的 人為的 地理的 季節的 環境的 職業的 經濟的 또는 社會的 其他 여러가지 條件과 여러가지 影響 아래서 일어나는 그들 疾病의 特性을 探求하고 이에 對한 効果의 治療 및豫防的措置를 講究함으로써 그 人口集團構成員의 健康增進을 圖謀하는 方向으로 세차게 變遷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齒科醫學의 境遇만하더라도 各種 매스·미디아를 動員한 口腔保健教育의 効率的 實施로부터 上水道의 弗素化(water fluoridation)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事業이 疫學의 調査方法을 通하여 評價되면서豫防齒科醫學이 不斷히 發展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分野의 ی러한 研究는 絶對多數의 集團構成員의 福祉를 保障하고 있으며 一部 歐美先進國에서는 그 成果의 至大함을 誇示하고 있는 터이다. “齒牙齲蝕症罹患率 0%化” 實現이 멀지 않다고 壯談할 만큼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들의 現實을 參酌할 때 이제 우리도 우리 國民의 口腔保健을 爲하여 個個人을 相對로 하는 從來의 始息의 治療도 重要하지만, 보다 次元이 높은 見地에서 訓期의 轉換點을 模索하여야 할때가 온것 같고 그려

기 위해 치과의사들은勿論關係機關의 積極的인 支援이
过去 어느때 보다도 切實하게 要請되는 바이다.

여기에서 가장 緊急한것이 口腔保健關係 資料일 것이다
며 이 資料는 口腔診查에 依하여서만 얻어지는 것이고
그 診查는合理的이며 明確한 基準에 依據한 것이어야
만 그 客觀性이 認定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럼으로서 所期의 成果를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校園나 地域을 對象으로 많은
口腔診查가 行하여 왔으나 각其 그 調查內容도 다르려
니와 그 調查基準이 模糊하여 그 結果는 서로 懸隔한 差
異가 있어서 많은 論難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公認될 만
한 調查의 實現을 切實히 希求해 오던 터이다.

이제 우리의 累年の宿願이던 口腔保健現況을 把握하
기 위한 史上初有의 全國的規模인 疫學調查를 施行함에
際하여 關係機關 및 關係人士의 労苦를 致賀드리며 앞
으로의 口腔保健政策樹立 및 치과醫療保險制度研究에
있어 모든 基本的資料가 될 이번 調查를 成功의 途로
遂行할 수 있도록 더욱 積極的인 協助와 格別한 配慮가 있
어야 할 것이다.

2. 調查計劃과 準備

本疫學調查는 1961年 9月 웨灵頓(Wellington, New Zealand)에서 開催된 世界保健機構 西太平洋地域 執行委員會에서¹⁾ 口腔保健은 全體健康과 人類福祉의 一部를 占한다²⁾. 그리고 나라마다 數많은 사람들이 龐大한 치과診療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事實은 認함으로서 비롯된 것이다³⁾ (WPRO project 115). 即 서로統一된 調查表와 基準을 가지고 調查를 實施함으로서 그 나라의 치과疾患의 性格과 範圍를 把握할 수 있는 同時に 地域間乃至는 國家間의 比較가 可能함으로서 國家를 超越한 政策을樹立하여 劃期의 口腔保健增進을 圖謀할 수 있다고 舉論決議한데 緣由하는 것으로 이를 五段階로 나눠遂行하도록 計劃되었다. 筆者が 參加한 것이 第三段階이고 이번 調查가 最後의 第五段階로서 實로 十年만에 우리나라에서 終結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世界保健機構(WHO) 本部에서는 1960年代에 이르러 世界的인 疫學調查專門家를 招聘하여 統一化된 調查方法을 討議하게 하였으며¹²⁾ (WHO techn. Rep. Ser. No. 242, 1962) 1963年에 各會員國家의 同意를 얻어(第二段階), 이를 基盤으로 한 實際의 統一化訓練課程이 싱가폴(Singapore, 1964)과 피지(Fiji, 1965)에서 마련됨으로서 修正補完 되었으며^{13, 14)} 全國의 規模임을勘察하여 調查表도 컴퓨터로 處理할 수 있도록 考察되었다. 그後 調查內容이 大幅簡素化된 이론바
체네바調査法(WHO/DH/69.84)¹⁰⁾이 나오는 等 basic의
이며 効果적인 調査表와 方法이 論議되고 있다.

疫學調查에 對한 計劃作成이나 評價에서 가장 緊要하며 細密하게 考慮될 要件은

- 1) 調査內容(調查表選定) 및 調査方法(調查基準)에
- 2) 合理的인 調査對象의 抽出(Sample selection—sampling method and sample scale)
- 3) 診査醫의 資格과 充實한 訓練 訓練받은 人的資源 確保(Calibrating the examiner and training the recorder)
- 4) 財源(Finance)
- 5) 活用할 時間(Scheduling)
- 6) 交通便 및 住民의 協助를 얻을 수 있는 最善의 方法 摸索<告示, 放送 또는 洞里長의 協助等>
- 7) 診査場所와 宿所<能率의 面을 考慮하여야 함>
- 8) 充分한 器具 및 設備 確保 等으로 이러한 要件이 갖춰짐으로서 圓滿한 計劃遂行 및 充實한 調査結果를 期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그 中에서도 診査醫의 選定과 訓練을 包含한 調査計劃作成如何가 成敗의 關鍵이다. 또 本疫學調查의 目的과 意義가 明白히 說明되어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標本抽出 報告形式等에 對한 具體的記述은 本稿에서는 紙面上省略키로 한다.

3. 調査對象選定

우리나라 國民을 代表할 수 있는 對象을 어떻게 選出하느냐 하는 標本抽出方法(sampling method)과 範圍(sampling scale)의 決定이 重要하다. 그러나 이 問題는 처음부터 치과醫師가 아닌 統計專門家에 技術的支援을 委嘱하는 것이 常例이며 理想의 途이다. 이에 對해서는 國際聯合의 標本調查小委員會의 報告를 參考하기 바라고 있다¹⁶⁾.

本調査를 為す 準備委員會가 여러번 모였고 그 後에 實行委員會(working committee)가 構成될 때도 統計專門家가 參與하여 話論되었던 것이다.*

筆者は 이미 1965年 鄭英鎮教授(梨大數學科長)에게 依頼하여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 漁村, 및 山間의 다섯 層으로 全國을 層化한 方法(multiple 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二次抽出까지 해 놓은 바 있고 그 抽出範圍는 0.1%로 確定한 바 있었다¹⁷⁾. 앤탈(Dr. George M. Antal, WHO Representative in charge to Korea)은 一地點마다 200名씩 79地點을 巡迴함으로서 15,800名을 調査(0.05%)하는 試案을 내놓은 일이 있으며¹⁸⁾ 前記 實行委員會의 李東宇教授도 亦是 0.05%에 該當되는 16,500名으로 算出하고 現在 地域選定이進行中에 있다.

* 金鍾培(서울齒大) 計劃作成
李東宇(延世醫大) 標本抽出
李正祐(梨花醫大) 歯科疫學調查方法

그러나 그후 (5月初) 本調査를 為하여 來韓한 크누트 손관문官(Prof. John W. Knutson)은 그의 多年間의 經驗을 通한 折衷案을 내셨으니 即 全年齡層에 對한 調査와 趨勢的考案을 活用한 調査와 結果가 거의 同一하다고 하여⁶⁾ 7, 11, 14, 및 19才의 學生層 10,000名과 30才層(28~32), 40才層(38~42), 50才層(48~52)의 成人 8,000名 都會 18,000名을 調査하자는 提案이다¹⁾. 이 原稿를 쓰고있는 現在까지는 確定된 것은 아니나 調査上 便宜點도 있어 크누트손案이 採擇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어느 案이 採擇되어도 地域選定만은 亦是委嘱된 專門家의 決定에 따라 行해지게 되는 것이다.

4. 調査表, 調査方法과 記錄方法

4-1 調査表(survey form)

調査表의 選定은 곧 調査內容의 確定을 意味하는 것인 만큼 慎重을 期해야 할 것이다.

이번 調査에서는 처음에 제작된 調査表를 撰写했다가 内容檢討에서 簡素化라기보다 不合理한 點이 非一非再하다고 하여 廢棄하고 今年 春(1971年 2月~4月) 臺灣(Taiwan)에서 實施된 調査表(Singapore form)을 补完한 것으로 컴퓨터로 處理할 수 있게 되어있음 <別表 參照>가 우리나라 疫學調查에서도 가장 適當하다고 結論

것고 이것이 採擇되었다.

4-2 調査內容

이번 調査表의 内容을 項目別로 보면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 1) 對象者確認地域一連番號, 種族, 姓名, 年齡.
- 2) 診査當時 齒痛의 有無
- 3) 齒科補綴物의 必要
- 4) 障碍 또는 頸頸面의 異常
- 5) 其他資料(附 빈방나무 열매를 씹는가 輿否)
- 6) 齒周疾患—齒齦炎의 有無, 齒周盲囊의 有無(3mm 및 6mm), 齒周疾患으로 因한 要拔去 齒牙數, 齒周스코어.
- 7) 口腔衛生狀態
- 8) 齒石
- 9) 現存齒牙數—乳齒, 永久齒別
- 10) 齒牙齶蝕症—乳齒, 永久齒別 df 및 DMF 齒牙數 및 齒牙齶蝕症으로 因한 要拔去 齒牙數
- 11) 弗化齒(fluorosis)

이번 調査에서는 齒痛(2), 빈방나무열매(5附), 齒周盲囊測定(6의 一部)을 除外하기로 決定하였다.

(다음號에 繼續)

齒協會誌寄稿案內

(1972年 2月 20日附로 아래와 같이 揭載料 一部를 引上합니다).

投 稿 要 領

- ① 原稿磨勘日字: 每月 10日
- ② 보 네 끝: 本 協會誌 編輯室
(서울 中區 仁峴洞 1街 31의 8號
現代醫學社內 (26) 8398 · 2257
- ③ 揭載料 内容

平 版: 頁當 1,400원
表英文版: 頁當 1,700원
圖 案: 枚當 350원
銅 版: 坪當 50원

(普通 寫眞1枚가 9坪임)

別 冊: 部當 40원
(50部 未滿은 50원)

印 刷: 臺當 2,000원

其他 特殊印刷 및 特殊組版을
要할 時는 그 實費를 寄稿者가 負
擔함.

④ 揭載順序 및 月號는 學術委員會에
서 決定함.

⑤ 寄稿時는 아래 事項을 明示바람.

(가) 別冊所要 日字

(나) 別冊部數

(다) 組版 및 印刷上 特司 注意를
要하는 事項.

* 其他 學會誌 및 一般印刷 問議는
現代醫學社로 (26) 2257 · 8398